

영암 F₁ D-1 미리 달려 본 카룬 찬독의 영암 서킷 가이드

<Turn 9/10>
5단 기어로 내려야 하는 내리막 블라인드 구간. 턴 9를 통과하면 2단까지 시프트다운하는 턴 10에 진입. 제동시 차체가 심하게 요동.

<Turn 4/5/6>
상당히 울퉁불퉁하다. 모두 2단 기어를 사용하는 타이트하면서 테크니컬한 구간.

<Turn 2/3>
오른 손 2단 기어를 사용하는 직선 주로. 머신 뒤에서 밀려오는 빠른 공기압을 잘 활용하면 추월하기 좋은 구간.

<Turn 7/8>
언덕을 올라가는 고속 우→좌 코너. 올해 리뉴얼된 실버스톤 서킷의 Abby/Farm 섹션과 유사함.

<Turn 11/12/13>
턴 11은 5단으로 진입해 4단 혹은 3단까지 내리는 코너. 턴 12는 노면의 뱅크로 코너 중간에서 탈출시 핸들조작이 힘들 듯. 턴 13은 4단 기어의 고속 구간.

<Turn 14~17>
턴 14~15는 다운힐 구간으로 턴 15에서 다시 오르막. 턴 16의 정점에 커다란 돌출부.

■ 트랙 개요
-레이스 일시 : 2010년 10월 24일
-서킷 길이 : 5.586km
-레이스 랩 : 55
-코너 : 18개
-직선주로 : 1.184km

<Turn 1>
고속으로 진입해 왼손 2단 기어를 사용하는 구간. 추월하기 좋은 지점.



'데모 런' 카룬 찬독

레드불 레이싱의 '원투 펀치' 마크 웨버(34·호주)와 세바스티안 베텔(23·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F1코리아그랑프리 유력한 초대 챔피언 후보로 꼽혔다. 지난달 F1 드라이버 가운데 처음으로 영암 서킷을 시험 주행(데모 런)한 카룬 찬독(26·인도·HRT)은 19일(한국시간)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레드불은 어

직선주로 강점 '레드불' 우승 유력

디에서나 빨랐다. 특히 3개의 직선주로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암 서킷은) 접지력(grip)이 약해 굉장히 미끄러울 것"이라며 "페라리와 맥라렌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19라운드 가운데 16라운드를 소화한

현재 레드불의 웨버가 220점으로 올 시즌 F1에 출전하고 있는 24명의 드라이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페라리의 페르난도 알론소(29·스페인)와 레드불의 베텔이 나란히 206점으로 추격 중이다. 맥라렌의 루이스 해밀턴(25)과 젠슨 버튼(30·이상 영국)은 각각

192점과 189점으로 뒤따르고 있다. 이들 5명이 올 시즌 F1의 강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F1코리아GP의 첫 우승도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찬독은 로이터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선 "만일 레드불 선수들이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한다면 그들이 초반의 굉장히 긴 직선 주로에서 자신들의 이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드라이버의)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알론소나 해밀턴, 버튼이 우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유명도박업체인 윌리엄 힐은 베텔의 우승배당률을 2대1로 책정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았다. 그 뒤를 알론소와 웨버가 각각 11대4와 10대3으로 추격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